

전후비평의 타자화와 폐쇄적 권력지향성

- 1960~70년대 ‘문학과지성’ 에콜을 중심으로

하 상 일*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문학과지성』의 비평의식과 문학권력의
형성 |
| II. 4월혁명과 문학지형의 변화 | 1. 질층적 비평의식과 인정투쟁 전략 |
| 1. 전후비평의 초극과 60년대 문학에콜의
형성 | 2. 인적 구성의 불합리와 폐쇄적 구조 |
| 2. 『문학과지성』의 창간과 70년대 비평의
대립적 구도 | IV. 맺음말 |

I. 머리말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적 방향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 식
민지적 근대성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주체적 근대성을 실현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적 기획들은 한국전쟁으로 역사적 연속성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송두리째 파산되어 버림으로써 또다시 역사적 단절을 심화시키

* 부산가톨릭대학교 강사

고 말았다. 한국전쟁이 남긴 폐허의 현실과 내면의 상처는 우리 민족의 가슴 속 깊이 결코 쉽게 치유할 수 없는 화인(火印)을 남김으로써 ‘아! 50년대’라는 감탄사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암담함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대의 문학, 특히 비평문학은 파산된 근대성의 복원에 주력함으로써 전후의 무질서를 주체적으로 초극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즉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후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존의식 그리고 파편화된 시간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의식 등은 바로 이러한 주체적 근대성을 지향하는 뚜렷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현대문학비평사는 엄밀히 말해 전후비평으로부터 비평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비평사는 1960년 4월혁명 이후 비평활동을 시작한, 소위 4·19세대 비평가들에 의해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비평의 독립성이 부각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물론 백낙청, 김현으로 대표되는 4·19세대 비평가들이 우리의 비평사에서 가장 뚜렷한 비평적 정체성과 동일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적 개인의 발견과 4·19혁명의 체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성된 비합리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전복적 관점의 형성, 삶의 주체성에 대한 열망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자율성의 원리” 등을 표방한 것은, “이들의 비평에 이르러 한국현대비평사에서 ‘문학비평’이 하나의 독자적인 문학 장르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¹⁾는 평가를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평사적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당시 60년대 비평가들이 전후비평의 타자화를 통해 4·19세대 비평의 문학사적 의미를 특별히 강조는 세대론적 전략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4·19세대 비평가들은 대표적인 전후비평가인 이어령, 유종호, 이철범 등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치밀한 비평적 의도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현이 4·19세대 비평가를 가리켜 “이 세대는 우리가 아는 한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세대”²⁾라고 말하거나, 김

1) 권성우, 『4·19세대 비평이 마주한 어떤 풍경』, 『비평의 희망』(문학동네, 2001), 117쪽.

주연이 50년대 문학에 대해 “허위의 타파를 외치다가 자기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못하고 허세에 빠져버린”³⁾ 문학이라고 비판하면서 같은 세대인 김승옥, 박태순, 서정인, 이청준 등의 문학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한 것은, 50년대 문학과의 차별성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60년대의 문학적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4·19세대 비평가들의 세대론적 전략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960년대 비평은 1950년대 비평가들에 대한 의식적인 차별화와 전후비평에 대한 평가절하를 통해 독자적인 비평세계를 선취해 내려는 세대론적 인정투쟁의 결과임에 틀림없다.⁴⁾

이러한 세대론적 인정투쟁의 과정은 대체로 새로운 매체의 창간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1960년대 비평사는 『비평작업』, 『청맥』, 『한양』 등의 비평정신이 『창작과비평』(이하 『창비』)으로 이어지고, 『산문시대』, 『사계』, 『68문학』 등이 『문학과지성』(이하 『문지』)의 창간으로 이어지면서 문학예술품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1966년 백낙청에 의해 창간된 『창비』와 1970년 김현 등에 의해 창간된 『문지』는 이후 우리 비평사를 양분하는 중추적인 흐름을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이 두 예술품은 1970년대 이후 한국문학을 거의 점유하다시피 해온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인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을 보유함으로써, 이들 잡지의 편집위원이나 동인으로 참여하는 60년대 비평가들은 자의든 타의든 한국문학의 핵심부를 장악하는 문학권력의 위치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본고는 이상의 비평사적 흐름 속에서 김현과 『문지』에 내재된 세대론적 전략과 『창비』에 대한 대타의식 그리고 인적구성의 폐쇄성 등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한국문학비평의 권력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문지』의 창간이 4월혁명 이후 전개된 비평사적 흐름을 전사(前史)로 하여 형성된다는 점과, 1960년대 비평이 4월혁명 이후 계속적으로 창간된 문학동인

2) 김현은 이들을 일컬어 ‘65년대 비평가’라고 명명하면서 염무웅, 백낙청, 조동일, 김주연, 김치수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비평의 가능성』, 『68문학』, 1969년 1월, 152쪽.

3) 김주연, 『60년대 소설가 별견』,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민음사, 1982), 271쪽.

4) 권성우, 『1960년대 비평문학의 세대론적 전략과 새로운 목소리』, 『문학사와비평연구회 편, 『1960년대 문학 연구』(예하, 1993) 참조.

지나 매체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문지』의 창간이 『창비』에 대한 대타의식의 결과라는 점과, 순수/참여 논쟁으로 정리되는 우리 비평사의 대립구도가 바로 이 두 예콜의 문학적 대립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은 당대의 문학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⁵⁾

II. 4월혁명과 문학지형의 변화

1. 전후비평의 초극과 60년대 문학예콜의 형성

1960년대는 1920년대 이후 다시 ‘동인지문단시대’가 찾아왔다고 할 만큼 대략 50여 종류의 동인들이 후후죽순 창간된 시기이다.⁶⁾ 대체로 이들 동인들의 구성원들은 당시 20~30대의 소장 문인들로서 <한국문학가협회>, <한국자유문학자협회>의 양대 산맥의 통합으로 결성된 <한국문인협회>⁷⁾의 현실적 한

5) 이에 대해 김병익은, 김현이 순수/참여 논쟁에서 순수문학론을 옹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론을 기치로 내건 『창작과비평』에 맞서 문학의 자율성을 지키는 새로운 동인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문학과지성』~창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현과 ‘문지’』, 『열림과 일균』(문학과지성사, 1991), 339~341쪽. 이에 반해 김병익 자신은, 『문지』의 창간이 『창비』에 대한 대타의식의 결과라기보다는, 당시 『창비』가 새로운 잡지문화나 계간지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가로쓰기, 한글체, 동인체제 등이 기존의 제도화된 잡지와는 다른 지식의 자유로움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지』의 창간 역시 이러한 형식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병익·김동식(대담), 『4·19세대의 문학이 걸어온 길』, 강진호 외 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깊은샘, 2003), 262~263쪽.

6) 1960년대는 결과 양의 측면에서 전대와 구분되는 뚜렷한 매체의 확대 현상을 보이는데, 4월혁명 이후 무려 1,400여 종의 잡지가 발행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5·16 이후 그 수가 229종으로 격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때, 당시 매체의 증가와 지식인의 비평의식이 아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용성, 『한국 지식인잡지의 이념에 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6 참조.

7) 5·16 이후 1개월 만인 6월 17일 혁명정부의 포고령 제6호가 발효되면서 기존의 모든 사회단체들이 해산된 후 61년 12월 30일 <한국문인협회>가 발족되었다. 62

계와 보수성을 뛰어 넘으려는 뚜렷한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기성세대의 보수적 문학과 문단의 헤게모니에 종속된 문학적 경향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문예지를 통해 자신들의 문학적 다양성과 새로움을 최대한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⁸⁾ 해방 이후부터 60년대에 이르는 남한문학의 흐름이 보수 우익 문예조직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는 점을 주목할 때,⁹⁾ 이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문학적 모색은 한국문학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4월혁명 이후 급격하게 고조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당대의 보수적 문단기류를 혁신함으로써 기성문단에 종속되어 버린 전대의 문학적 경향을 환골탈태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고자 했던 것이다.

60년대의 제도권 문단이 50년대와 달리 단일화된 조직으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 역시, 문학적 이념이 같은 에콜을 중심으로 한 자연스러운 통합이라고 보다는 다분히 문단권력의 헤게모니에 의해 이합집산을 거듭한 결과라는 점에서 비판의 초점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문단 통합이 문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중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특정 정치집단의 정략적 입장과 철저하게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예술활동의 본질인 자율성과 다양성마저 침해당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새로운 동인지와 잡지의 출현은 소장비평가들이 제도권 문단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비평을 발표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장(場)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년 1월 5일에는 문학을 포함한 문화계의 단일 조직인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문총)도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예총)로 재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강희, 『1960년대 문예조직 활동의 저류 및 분화과정』, 『우리 근·현대문학의 맥락과 쟁점』(태학사, 2001), 195~196쪽.

- 8) 1960년대에 출간된 대표적인 문예지와 동인지 그리고 문학 관련 교양종합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0년대 사화집』(61년), 『한양』, 『산문시대』(62년), 『세대』, 『청맥』, 『신춘시』, 『비평작업』(63년), 『문학춘추』, 『사계』(64년), 『창작과비평』, 『현대시학』, 『문학』(66년), 『월간문학』(68년), 『68문학』, 『상황』(69년), 『문학과지성』(70년).
- 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철, 『한국 보수우익 문예조직의 형성과 전개(1)』, 『구체성의 시학』(실천문학사, 1993)을 참조할 것.

태초와 같은 어둠 속에 우리는 서 있다. 그 술한 言語의 亂舞속에서 우리의 全身은 여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다.

이 천년을 갈 것 같은 어두움 그 속에서 우리는 神이 느낀 권태를 반추하며 여기 이렇게 서 있다. 참으로 오랜 歲月을 끈덕진 인내로 이 어두움을 감내하며 우리는 여기 서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다. 이 어두움이 神의 人間創造와 同時에 除去된 것처럼 우리를 주변에서도 새로운 言語의 創造로 除去되어야 함을 이제 우리는 안다. (...) 얼어붙은 權威와 구역질나는 모든 話法을 우리는 저주한다. 뻘을 가는 어두움이 없었던 모든 자들의 안이함에서 우리는 기꺼이 脫出한다. (...) 우리는 이 투박한 大地에 새로운 거름을 주는 농부이며 탕자이다. 비록 이 투박한 大地를 가는 일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절망적인 作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손에 든 햇불을 던져버릴 수 없음을 안다. 우리 앞에 끝없이 펼쳐진 길을 우리는 이제 아무런 장비도 없이 出發한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죽음의 팻말을 새기며 쉬임없이 떠난다. 그 팻말 위에 우리는 이렇게 다만 한마디를 기록할 것이다. <앞으로!>라고.

인용문은 62년 김현, 김승옥, 최하림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산문동인>의 첫 동인지 『산문시대』¹⁰⁾의 서문 가운데 일부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당대를 “어두움”으로 규정하면서 “얼어붙은 권위와 구역질나는 모든 화법”을 지닌 기성문단을 제거하는 “새로운 언어의 창조”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이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곳”의 “고양이의 눈”¹¹⁾과 같은 것으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고양이의 파란 눈빛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존재가 바로 사물로서의 언어임을 확신함으로써 역사나 사회가 아닌 ‘언어’ 그 자체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존재와 언어’에 대한 탐구는 전후세대 비평을 초극하는 미적 자율성론으로 구체화됨으로써 70년대 『문학과지성』의 비평적 근거가 된다.

4·19 이후 간행된 동인지나 잡지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나 소설 위주의 작품 중심 편집체제에서 벗어나 동인들을 중심으로 한 비평적 목소리를 더욱 전면

10) 1962년 6월 15일 가림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으로, 첫 페이지에 “슬프게 살다간 李箱에게 이 책을 드림”이라는 헌사가 적혀 있다. 제1집에서 김현, 김승옥, 최하림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제2집부터는 강호무, 김산초, 김치수가, 제3집에서는 김성일이 새로 참여하고, 제4집부터 염무웅, 서정인이, 그리고 제5집에서는 곽광수가 새롭게 참여하고 있다.

11) 김현, 『잃어버린 처용의 노래』, 『산문시대』 1, 위의 책, 20쪽.

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당시의 문학적 태도가 비평 분야를 부차적으로 인식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비평의 영역을 중점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4월혁명 이후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의 새로운 정립을 통해 비평활동을 시작한 참여문학 진영의 비평가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비평작업』, 『상황』 등의 비평동인지와 『청맥』, 『한양』 등의 교양종합지에 수록된 문학비평은 전후 비평에 대한 첨예한 비판을 통해 60년대 비평가들의 세대론적 정체성을 뚜렷이 형성하고 있다.

『비평작업』¹²⁾은 ‘평단소송’이라는 난을 통해 백철의 전통론, 이어령의 순수지향적 특성, 조연현을 중심으로 한 기성문단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데, 심지어 “이젠 펜을 꺾으시오,” “그럴 자신쯤 없대서야 일찌거니 자진폐간을 서두르는 게 현명책일지 모른다”와 같은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혈기왕성한 학생비평가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기성문단에 얽매이지 않는 비평의 패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후 비평과의 차별의식에 지나치게 경도됨으로써 인상비평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4월혁명 이후 진보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장으로 『청맥』¹³⁾을 창간하는데, 이를 통해 조동일, 주섭일, 구중서, 백낙청 등이 비평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출간된 『한양』¹⁴⁾에는 장일우, 김순남,

12) ‘정오평단(正午評團)’의 문학평론 동인지로, 이광훈, 임중빈, 조동일, 주섭일, 최홍규 등이 동인으로 참가하고 있다. 1963년 1월 10일 제1권이 발행되었는데, 이후 계속적으로 출간하지 못하고 창간호가 중간호가 되고 말았다. 『비평작업』은 4·19와 5·16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생비평가들의 문학적 활로를 엿볼 수 있다는 점과, 당시로서는 특이하게도 ‘비평전문지’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우리 비평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희귀 잡지로 본 문학사』(깊은샘, 2002), 102~103쪽.

13) 김진환이 발행 겸 편집인을 맡고 김질락이 주간을 맡아 간행된 사상교양종합지이다. 『청맥』은 김중태(김진환의 선배)를 중심으로 한 통일혁명당의 매체로서 당시의 진보적 지식인들을 규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태순·김동춘, 『통혁당 사건과 『청맥』』, 『1960년대 사회운동』(까치, 1991), 226쪽 참조.

14) 1962년 3월 일본에서 간행된 재일교포의 유일한 교양종합지로 한국의 문화를

장백일 등의 비평이 두드러지게 발표되었는데, 이들 모두 참여론적 시각의 비평을 발표함으로써 60년대 참여문학론의 뚜렷한 한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비평정신의 계보는 66년 백낙청이 중심이 되어 창간된 『창비』로 이어지고, 69년에는 구중서, 임헌영 등이 중심이 된 『상황』¹⁵⁾이 창간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중심에 둔 문학의 실천적 측면이 이론적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¹⁶⁾

이상에서처럼 4월혁명 이후 전개된 한국문학비평은 전후세대 비평을 초극하려는 신진비평가들의 활발한 비평활동과 기성문단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 창간된 새로운 동인지와 문학매체가 적절하게 만남으로써, 당시 기성문단이 지니고 있었던 주류적 의식과 태도를 전복시키는 또 다른 제도권의 창출로

소개하고 일본문화와의 관련성을 모색한 글이 다수 실려 있다. 『한양』은 우리 비평사에서 1960년대 순수·참여논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들은 순수문학보다는 참여문학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이 잡지는 제일 문인들과 국내 필자들이 반반쯤 나누어 글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1974년 '문인간첩단사건'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허윤희, 앞의 글, 110쪽 참조.

- 15) 1969년 8월 15일에 범우사에서 발행되었는데, 임헌영, 구중서, 백승철, 신상웅 등이 창간동인으로 참여하였고, 2집부터는 김병걸이 편집동인으로 참여하였다. 1집에는 구중서·임헌영·주성운·백승철 등의 비평과 신동엽 미발표 유고, 이육사에 대한 화보 등이 실려 있다. 임헌영에 의하면, 그 당시 『창비』에서는 김수영 일기를 연재했는데, 김수영이 우리 시사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그것을 우리 시의 한 지향점이나 민족문학의 지향점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동인들은 오히려 신동엽을 분단역사의 우리 시의 한 좌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창간호에 신동엽의 미발표 유고를 소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은 60년대 후반 임헌영, 구중서 등의 참여문학론자들이 『창비』에 가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상황』을 창간한 맥락을 살펴보는 데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임헌영·채호석(대답), 『유신체제와 민족문학』, 강진호 외 편, 앞의 책, 296쪽.
- 16) 1966년 『창비』의 창간을 출발점으로 하여 1969년 1월 『68문학』과 그 해 8월 『상황』지가 차례로 발간되는 과정은 4·19세대 비평가 집단의 내부 분화과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즉 4·19세대 비평의 에콜화는 문학적 이념의 공유에 의한 것인데, 김현 중심의 『문지』~혜콜에서 비평활동을 했던 염무웅이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창비』~혜콜에 합류하는 과정은 당시 4·19세대 비평가 집단의 내부 분화과정과 『문지』~혜콜이 지닌 인적 구성의 폐쇄성을 잘 보여준다. 임영봉, 『한국현대문학비평사론』(역락, 2000년), 179쪽 참조.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전후세대의 비평을 타자화함으로써 4·19세대 비평의 의미를 강조하려 했던 이들의 세대론적 전략은 아주 유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문학적 입장과 세대론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결성된 문학동인과 매체의 창간은, 70년대 이후 우리의 비평사가 특정 비평가들에 의한 예콜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사(前史)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2. 『문학과지성』의 창간과 70년대 비평의 대립적 구도

4·19세대 비평은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감수성의 혁명”, “리버럴리즘과 상상력” 같은 미학적 탐구에 주력한 『68문학』계열과, “자유와 평등의 정신”, “사회 의식과 역사 의식”을 통해 문학의 현실참여를 강조한 『창비』계열로 뚜렷하게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문학의 존재성/문학의 기능성’, ‘이론적 실천/실천적 이론’, ‘시민적 전망/민중적 전망’, ‘현실에의 반성적 질문/현실에서의 몸담음’ 등 이원적 대립의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70년대 이후 우리 비평을 『문지』/『창비』의 대립적 구도라는 도그마 속에 가두어 버린다. 물론 이들의 비평적 출발이 4월혁명의 역사적 성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과 유신체제에 대응하는 지성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공동의 노선을 지니는 측면도 있지만, 당대의 현실적 모순에 대한 문학적 응전의 태도에 있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그 차별성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¹⁷⁾

1966년에 창간된 『창비』는 우리 문학사에 최초의 본격적인 계간지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비평작업』, 『청맥』, 『한양』 등의 지면을 통해 조금씩 모색되었던 민족문학의 방향과 현실참여의 정신이 당대의 순수주의 문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문학을 통한 실천과 변혁의 가능성을 새롭게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창비』의 이념

17)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에 저항하는 ‘실천적 이론’과 그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실천’은 『창비』와 『문지』의 문학이념에 각각 대응한다. 『창비』와 『문지』의 문학이념의 차이는 현실개혁의 의지를 문학을 통한 실천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과 문학의 끊임없는 자유로움으로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다. 김형수, 『김현 문학비평 연구』, 창원대 박사논문, 2002, 164쪽.

과 정신 그리고 방향성은 창간호에 실린 백낙청의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를 통해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순수주의를 고집하는 입장은 서구 예술가들의 경우와도 또 다르다. 건실한 중산계급의 발전을 본 일이 없는 한국 사회에 유럽 부르조아 시대의 예술신조가 뿌리박았을 리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학의 순수성을 금과옥조인 양 내세우는 것은, 제대로 정리 안 된 전근대적 자세를 제대로 소화 못한 근대서구예술의 이론을 빌려 옹호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치·경제면에서, 유럽 중산층의 정치·경제 이념을 평계로 한국의 후진적 사회구조를 견지하려는 것과 정확히 대응되는 현상이다.¹⁸⁾

위의 글은 당대의 우리 사회와 문학에 대한 첨예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특히 순수문학론을 주장하는 일련의 비평가들이 지닌 서구이론지향성과 전근대적 태도의 허위성을 냉정하게 질타하고 있어 주목된다. 백낙청에 의하면, 순수문학의 이념은 프랑스혁명 이후 세력을 형성한 유럽 부르조아의 이데올로기이므로 중산계급의 발전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사회와는 맞지 않는 일종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이러한 논리 역시 “서구라파적 근대성을 ‘완성형’으로 설정한 후, 한국적 근대성을 ‘결여형’으로 파악하는 사고구조”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진국 지식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콤플렉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듯하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진보적인 예술이론과 예술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된 백낙청의 참여문학론은, 당대의 순수문학론이 지닌 허구성을 비판적으로 논리화하는 비평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이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실천을 강조한 『창비』~예콜에 대한 대타의식으로 1970년에 창간된 것이 바로 『문지』이다. 이는 『산문시대』-『사계』²⁰⁾-

18)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창작과비평』~창간호, 1966, 8쪽.

19) 이명원, 『백낙청 초기비평의 성과와 한계』, 『타는 혀』(새움, 2000), 292쪽.

20) 1966년 가람출판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1집에는 황동규, 박이도, 정현중, 김화영 등의 시와 김주연의 평론, 김현의 산문이 실려 있다. 그리고 2집(1967)과 3집(1968)에는 앞의 시인들의 신작시와 김주연, 김현의 평론이 실려 있다. 특히 김주연, 김현의 평론은 ‘시론’으로, 『사계』~동인이 소설전문 동인인 『산문시대』와 달리 시전문 동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68문학』²¹⁾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창비』의 활성화에 자극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미학주의의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해온 이전 동인지와의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창비』에 맞서는 『문지』~혜콜의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표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68문학』의 동인이었던 염무웅은, 문학의 본질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문학관과 『문지』~혜콜의 지향성이 상호 모순과 괴리를 지니고 있음을 절감하여 『68문학』을 떠나 『창비』에 합류하는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기도 했다. 결국 『문지』~혜콜은 태생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자기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폐쇄적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생각에 반하는 문학적 입장을 배제하거나, 동인들 간의 의식적인 제휴를 통해 이미 평단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지니고 있었던 『창비』의 문학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비평전략을 뚜렷이 전개했다고 할 수 있다.

『문지』의 문학관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문학의 자율성 옹호’와 ‘현실에 대한 분석적 인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문학의 자유스러움’을 억압하는 것을 모두 부정함으로써 문학의 자율성을 통해 현실 사회의 모순을 구조적 차원에서 인식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 것이다.²²⁾ 즉 『문지』의 창간은 “문학을 질식시키는 도그마적인 발언에 대한 분노와 새것 콤플렉스로 명명되는 사대주의적 발상에 대한 혐오”를 통해, 『창비』~진영으로 대표되는 참여문학론의 억압적 태도와 주체성을 상실한 외래주의의 허무주의적 태도를 동시에 비판하는 문학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이러한 태도는 백낙청·염무웅·구중

21) 1969년 1월 한명문화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김승옥, 김주연, 김치수, 김현, 박태순, 염무웅, 이청준 등이 편집동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창간호가 중간호가 된 1집에는, 박상룡, 박태순, 이청준, 홍성원 등의 소설과 김화영, 박이도, 이성부, 이승훈, 정현중, 최하림, 황동규 등의 시, 그리고 김병익, 김주연, 김치수, 김현, 염무웅 등의 평론이 실려 있다. 특히 평론가 중에서 염무웅을 제외한 네 사람은 『문지』의 창간 멤버라는 점에서, 『68문학』은 사실상 『문지』의 전단계적 성격을 지닌 동인지라고 할 수 있다.

22) 정희모, 『문학의 자율성과 정신의 자유로움』, 민족문화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편, 『1970년대 문학연구』(소명출판, 2000), 87~88쪽.

23) 하지만 70년대 『문지』의 정신적 편력이 실존적 정신분석, 구조주의, 기호학, 문학사회학 등을 주목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과연 그들 역시 김현이 그렇게 비판했던 ‘새것 콤플렉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 등 참여문학론을 주장하는 평론가들에 맞서 당대의 ‘구호적 문학’을 ‘문학의 자율성’으로 대체시키려는 자유주의 문학론을 표방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문지』의 『창비』에 대한 대타의식은 70년대 우리 문학을 “양식화의 아름다움”(김병익)과 “민중적 실천”(염무웅)으로 양분시켜 버림으로써, 4월혁명 이후 견고하게 형성되었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의 문학을 상상력과 언어의 그물 속에 가두어 버리는 비평의 결락을 가져오고 말았다.

치열한 삶의 재현이란 그것이 언어를 매체로 하는 한 작가의 언어적 능력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착각이며 또한 빈약한 주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완벽한 조형을 기대하는 것 역시 환상이다. (...) 삶의 치열성과 언어의 완벽성을 (...) 동시에 획득할 때 그 문학은 가장 구체적이고 구상적인 것을 묘사하면서 그와 함께 보편적이고 개념적인 상징의 언어로 승화될 수 있다.²⁴⁾

위대한 삶은 위대한 문학만을 낳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사상도 낳을 수 있고 위대한 웅변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대하지 않은 삶이 위대한 문학을 낳을 수는 없다. 요컨대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며, 이 삶의 무게가 작품 속에 올바르게 운반될 때 그것은 작품 자체의 무게로 전화(轉化)되는 것이다.²⁵⁾

이상에서처럼 『문지』의 비평전략은 『창비』와의 대결의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문학적 형상화 방법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의 비평사를 자유주의·지성주의 노선과 현실주의·민중주의 노선이라는 극단적 대립의 양상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지』는 양자의 문학적 방향이 모두 진보주의를 지향하는 공통된 비평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문지』와 『창비』의 구도를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바

결국 『문지』의 『창비』~비판은 자기모순의 함정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한계는 서구 문학비평의 다양한 방법론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정작 한국문학 속에서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방법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홍정선, 『70년대 비평의 정신과 80년대 비평의 전개 양상』, 『역사적 삶과 비평』(문학과지성사, 1986) 참조.

24) 김병익, 『한국 문학의 의식』(동화출판공사, 1976), 283쪽.

25) 염무웅, 『시와 행동』, 『민중시대의 문학』(창작과비평사, 1979), 173~174쪽.

라보는 당시 평단 일각의 태도를 철저히 경계하는 자기모순의 어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창비』와 『문지』의 관계에 있어 보족성과 공통성을 전경화하여 양자가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냄으로써, 『창비』와 더불어 『문지』 역시 동일한 방향성을 지닌 운동매체인 것처럼 독자들의 인식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양자의 문학적 역량과 비중을 동일한 것으로 정당화하려는 전술이며, 『창비』/『문지』의 관계를 우월/열세의 구도로 바라보려는 평단의 분위기에서 비롯된 열등감과 역사와 현실을 배경화하는 『문지』의 자율성론을 향한 도덕적 비난에 대한 압박감을 역설적으로 해소하려는 치밀한 전략의 결과인 것이다.²⁶⁾ 이처럼 1970년대 『문지』의 이념과 방법은 『창비』에 대한 강력한 대타의식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기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내부적 결속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외부 조직과의 대립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폐쇄적 성격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III. 『문학과지성』의 비평의식과 문학권력의 형성

1. 절충적 비평의식과 인정투쟁 전략

앞에서 살펴봤듯이 『68문학』을 계승한 『문지』의 이념과 지향성은 『창비』의 대항매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이들은 문학과 현실의 직접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구호주의, 실용주의 등을 비판함으로써 문학의 도구화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한 마디로 『문지』의 이념은 ‘고전적 자유론’에 바탕을 둔 ‘정신의 자유로운 조작’ 또는 ‘자유롭고 진보적인 정신의 태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지』 편집동인들은 도식적이고 성급한 결론이나 쉬운 해답보다는 방법적 성찰의 사고과정을 중시하며, 맹목적 선(善)의지, 도덕

26) 황국명, 『<문학과 지성>의 도식적 기술체계 비판』, 『문학과지성 비판』(지평, 1987), 57쪽.

적 엄숙주의보다는 ‘고민’, 즉 ‘지성의 방법론적 회의’를 더 우월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구호”나 “풍문”이 아니라 “문학과 지성의 언어”를 선택하는 행위가 바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며 용기있는 결단”이라는, 문학의 도구화에 대한 비판과 문학의 자율성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구호와 풍문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文學>과 <知性>의 言語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며 용기있는 決斷이라 생각한다. (...) 우리는 言語가 유행의 소리로 미만한 이 세계에 가장 근원적인 否定의 힘이 되고 그 힘에 의해서만이 진리를 허용하지 않는 이 狀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文學과 知性の 言語探究가 遊戲라는 음흉한 비난이나 逃避란 악의적인 공격을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참담한 現實에 대한 고통스런 인식과 현실의 迷夢에 함몰할 것을 거부하는 뜨거운 自己選擇의 아픔 때문이다.²⁷⁾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우리 비평사의 전개과정이 순수/참여의 이분법적 대립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의 핵심에는, 그들과 『창비』의 관계를 순수/참여의 대립으로 바라보는 평단의 태도를 지양·극복하겠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순수/참여의 이분법적 대립이야말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태도임을 비판하면서, 『창비』와의 관계를 배타적 대립 관계가 아닌 변증법적 상호보완 관계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지나치게 『창비』를 의식한 데서 비롯된 절충적이고 기형적인 비평의식이란 점에서, 정작 그들이 전후세대 비평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웠던 주체적 비평의식과도 상반되는 자가당착의 모순을 보여준 것이 아닐 수 없다.

기존의 문단과 구별되는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의 진보성은 각각 현실에 대한 민중적 실천과 방법적 접근으로 나타난다. 현실개혁의 의지를 문학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창작과비평』과 문학의 끊임없는 자유로움으로 경직화된 현실과 맞서고자 한 『문학과지성』은 유신체제라는 폭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충실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지켜나갔다. 민족·민중문학을 내세운 전자는 문학은 분단모순과 계급모순의 해결을 위한 부단한 실천이라는

27) 『이번 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1973년 여름호, 259쪽.

태도를, 정신의 리버럴리즘을 내세운 후자는 문학은 그 속성에서 영원히 비체계적이라는 태도를 보여 주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문학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학적 흐름을 형성했다. 동시에 전통적인 인간관계에 얽매어 있던 기왕의 문단풍토를 혁파해 나가면서, 문학과 사회에 대해 서로 대립적인, 그러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길을 걸음으로써 이후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²⁸⁾

물론 이들 두 비평집단은 4월혁명과 5·16으로 이어지는 60년대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전후비평의 한계와 보수성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비평풍토를 함께 조성했다는 점에서 일면 공통적인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60년대 중반 이후 제기된 일련의 논쟁과정에서 『창비』가 참여문학과 민족문학론을 제창한 반면, 『문지』는 이데올로기보다는 문학 자체의 자율성과 예술성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두 비평예콜의 이념과 실천은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자본주의적 모순이 광범위하게 표출됨에 따라 4월혁명에 의해 형성된 문학적 인식틀 역시 서서히 자기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창비』와 『문지』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4·19세대의 문학적 분화과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표면화되었다는 점을 놓쳐서도 안 된다.²⁹⁾ 결국 『창비』와 『문지』의 대립은 이념적 차원에서의 명백한 차이뿐만 아니라 4월혁명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1960년대 후반 문학비평의 분화과정 속에서도 더욱 뚜렷한 대립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지』가 『창비』와의 관계 속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대의 문학지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비평적 타자로서의 『창비』에 대한 대타의식을 통해 자기동일성을 확립하려는, 그래서 『창비』와 비평적 목소리를 대등하게 형성함으로써 『문지』의 문학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치밀한 비평적 의도를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자신이 『창비』의 맞은 편에서 다른 가치 체계와 지향을 가진 이른바 『문지』에 참여하여 『창비』와는 상반된 대안의 탐색에 노력해 왔다고 할 수

28) 김병익, 『김현과 ‘문지’』, 앞의 책, 341쪽.

29) 이광호, 『맥락과 징후』, 『비평의 시대』(문학과지성사, 1991), 25쪽.

있겠지만, 저와 저의 동인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창비』의 선도적이고 문제 제기적인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창비』~ 없이는 『문지』가 결코 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지만, 『창비』는 『문지』의 존재에 관계 없이 그 자체의 역사적 자리를 얼마든지 충분히 견져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³⁰⁾

이처럼 『문지』는 『창비』에 대한 대타의식 속에서 양자를 ‘상호보완적’으로 인식하는 절충적 비평의식을 표면화했다. 이는 『창비』의 대항매체로서 『문지』가 지닌 당대적 의미를 더욱 확고히 천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평단에서의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또다른 권력지향성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실제비평에 있어서는 『창비』에 대한 집요한 비판을 전개하면서도 담론전략에서는 “보족성”이니 “실천/이론의 종합”이니 하는 절충적 비평의식을 드러낸 것 역시, 『창비』에 대한 열등감을 은폐하려는 수사학적 전략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비평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편집 동인들 간의 의식적인 제휴를 통해 우리 비평사에서 전무후무한 폐쇄적 예클의 전형을 창출하고 만다.

사고의 획일화 혹은 도식적인 사고는 어떤 의미에서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사고하게 되었는가를 사고 자체가 명백하고 그리고 뚜렷이 자각하는 일이다. 그것이 없는 한 사고의 결과가 아무리 멋있고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남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 (...)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결과만을 보여줄 때 사고는 맹신을 부르고 요청하게 되며, 맹신은 다시 획일화된 사고를 전면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보급시키는 데 공헌한다. 그것은 반성을 불가능하게 하며, 성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망각케 한다. 사고의 과정이 아니라 사고의 결과만을 내보여주는 자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³¹⁾

『문지』의 수사학은 그 스스로가 타자의 권위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정작 타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재단해

30) 김병익, 『『창비』와 한국 4반세기의 역사』, 『우공(愚公)의 호수를 보며』(세계사, 1991), 153쪽.

31) 『이번 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 1973년 겨울호, 751쪽.

버리는 언어도단의 위험성을 농후하게 드러낸다. 인용문에서 말한 “사고의 획일화 혹은 도식적인 사고”는 분명 당대의 참여문학론, 특히 『창비』가 주도하는 현실주의 문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를 통해 현실부정의 진정한 모습은 “사고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데서 구현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은연중에 『창비』의 비평담론이 사고과정의 중요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오직 결과만을 강조하는 비평의 결락을 지니고 있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문지』는 비평적 타자인 『창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통해 그들만이 진정 “성찰”의 가능성을 지닌 매체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는 우리 사회현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유보함으로써 “유희”와 “도피”의 문학으로 경도되어 버렸다는 당시 우리 평단의 『문지』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담론전략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수사학적 전략을 통해 『문지』는 명분상으로는 열림과 대화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지』대부의 결속력을 통해 어떠한 이견이나 편차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폐쇄적 구조를 견지했다. 또한 그들의 문학적 이념과 지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창비』에 대한 대항매체로서의 현실적 성격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문학과지성사>라는 전용출판사를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문학적 모색 속에는 그들 자신이 주장한 ‘상호보완적’이라는 말의 허위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창비』/『문지』의 대립적 구도를 대등하게 형성함으로써 문단의 헤게모니를 새롭게 장악하려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문단은 사실상 두 에콜에 의해서 양분되는 이분법적 양상을 고착화시켰고, 『문지』의 인정투쟁 전략은 그들의 의도대로 대부분 이루어짐으로써 70년대 이후 『문지』는 명실공히 문학권력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2. 인적 구성의 불합리와 폐쇄적 구조

『문지』의 폐쇄적 구조는 편집동인들의 관심과 이해에 종속된 편집체제나 신인등단제도 등의 불합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문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편집동인들 스스로가 검열자적 도식성과 편협성을 드러냄으로써, “한 잡지는 그 잡지가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것만을 전할 권리가 있다”는 매체권력

의 독점적 편집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문지』~미판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는 자기모순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³²⁾ 이는 다양한 외국이론의 수용과 다른 분야와의 적극적인 제휴 그리고 상호 열림의 길트기로 나아가겠다는, 『문지』가 표방한 열린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폐쇄성의 한 극단을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열려진 문화에로의 나아감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창한 담론을 내세우며 77년 봄호부터 편집동인으로 받아들인 김종철이 79년 가을호부터 편집동인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창비』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문지』가 표방하는 문학적 이념과 실천의 과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자의든 타의든 어느 누구도 동인으로 함께 하기 어려운 인적 구성의 불합리와 폐쇄적 구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문지』의 편집동인과 고정필자 그리고 신인발굴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표 1> 편집동인(고정필자)과 신인의 출신대학과 전공 현황³³⁾

편집동인(고정필자)	신인		
	출신대학	전공	인원
서울대 불문 (김치수·김현·오생근)	서울대	불문4, 독문1, 국문1, 언어1, 영문1	8
	외 대	영문1, 불문1, 인도1	3
	경희대	국문1	1
서울대 독문(김주연)	건국대	국문1	1
서울대 영문(김우창)	영남대	국문1	1
	고려대	독문1	1
서울대 정치학(김병익)	연세대	1(학과미확인, 73년 시문학추천 기성시인)	1
	미확인	3(1명은 중대 영문과 교수)	3
			19

32) 『문지』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독자의견란>을 두었는데, 71년 가을호에는 양동안의 글이 실려 있다. 양동안은 71년 여름호에 실린 김병익의 「지성과 반지성」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면서 『문지』에 지면을 할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지』는 이를 거절하고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로 요약해 줄 것을 희망한다. 결국 그의 글은 독립된 평문으로 발표되지 못하고 <독자의견란>에 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지』가 표방한 열린 정신이 그들이 즐겨 구사하는 담론전략일 뿐, 어떠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는 반도그마를 가장한 도그마적 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33) <표1>은 1973년 봄호부터 80년 봄호까지 『문지』의 주요 필자 및 신인발굴 현황이다. 황국명, 앞의 글, 72쪽의 표를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한 것임.

<표 1>에서처럼 『문지』는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에 편중된 인적 구성과 외국문학 전공자 일변도의 편집체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신인 발굴에 있어서도 편집동인들과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자들을 등단시키거나, 특정 대학과 학과에 편중된 신인들을 문학적으로 도제화하는 등단제도의 폐단을 보여주었다. 우선 70년대 19명을 배출한 신인들 가운데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고작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특정 전공에 초점을 두고 신인등단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지』에만 유독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만큼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문지』의 편집체제가 필자 선정의 편협성과 등단제도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폐쇄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편집동인들의 정신적 거점인 외국문학을 선협적으로 공유해야만 한다는 점, 편집동인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편집동인들의 문학적 이념이나 방법론과 온전히 일치해야만 한다는 점 등의 문학 외적 조건이, 『문지』에 필자로 참여하거나 등단을 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편집동인들과의 수직적 관계를 승인함으로써 그들 밑에서 훈육되고 양성되는 도제적 시스템을 암묵적으로 수용해야만 『문지』에 골에 편입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결국 이러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는 『문지』 동인들의 권력지향성을 더욱 확고하게 내면화시켜 주었고, 이로 인해 우리 문단은 잡지 편집동인들과의 친소관계에 의해 문단에서의 위상과 문학적 평가를 결정해 버리는 문학권력의 전횡을 더욱 제도화하고 말았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한국문학비평은 대체로 신구세대가 문단의 기득권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통해 새로운 문학권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인정투쟁을 펼치며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평 행위가 타자를 향한 권력의 행사인 동시에 권력관계의 첨예한 노출을 의미한다는, 그래서 이념적·권력적 차원에서 특별한 정치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비평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비평과 정치’ 혹은 ‘비평과 권력’의 관계 자체를 문제삼거나 비판하는 것은, 비평의 본질과 기능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평무용론과 별로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

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비평의 본질에 내재된 정치성과 권력적 특성이 정당한 경로를 거쳐 합리적으로 소통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비평이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차원의 정치성을 지님으로써 타자에 대한 극단적 배제의 논리를 앞세우거나 자신의 해석들에 맞춰 타자를 굴복시키려는 음험한 의도를 은폐하고 있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선택과 배제의 논리를 앞세우며 한국 문단을 그들의 문학적 이념과 방법에 맞춰 재편하려는 경직된 비평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1970년대 『문지』의 권력지향성은, 우리 비평의 성숙과 발전을 가로막아 온 가장 큰 걸림돌이었음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역량있는 작가는 현실 혹은 사실을 더욱 예민하게 관찰하고 그 의미를 통찰하며 그 시대 또는 사회와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이 어떤 문맥으로 연결되는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기자 혹은 사회과학자와 다른 작가란 점은 현실과 작품 사이에 想像力을 작용시키고 그 상상작용을 운반할 적절한 표현 매체〔文體〕를 획득한다는 특수한 능력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 작가가 주제를 확대했다든가 실험적인 수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확대 또는 실험 그 자체에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다. 상상력의 확대와 표현 방법의 개척이 내포하는 현실 의식, 작가 정신의 확대·개발 및 그것의 특이한 성과, 탄력적인 意識作用의 효과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견들은 현실과 무관한 것 혹은 현실로부터의 逃避가 아니라 현실을 概念化시키고 그것을 否定・克服하려는 知的作用을 관찰하는 것이다.³⁴⁾

인용문은 1960년대 신상웅, 김원일, 박태순, 최인호의 소설을 작가와 현실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 글이다. 이를 통해 김병익은 “현실의 역사적 상황 분석과 구조적 상황 분석, 그것을 처리하는 外向的 방법과 内向的 방법”의 차이를 통해 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의식의 편차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상상력의 확대와 표현방법의 개척”을 강조함으로써 문학과 현실의 객관적 거리 확보와 “상상력”과 “문체”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가 김병익 개인의 비평의식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 『문지』~혜콜 전체의 비평의식을 드러내는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용문에 제시된 작품분석의 틀은, 문학작품과 현실을 지나치게 상동적 관

34) 김병익, 『60년대의식의 편차』, 『문학과지성』 1974년 봄, 168쪽.

계로 바라봄으로써 정작 문학작품이 내재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와 기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창비』~『예콜』의 문학관을 향한 궁극적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판은 ‘해석 독점의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문지』~『예콜』의 문학관만을 절대적 가치기준으로 삼는 비평전략이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문지』의 폐쇄적 구조와 권력지향성은 우리 비평사의 단절과 대립을 심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1970년대 『문학과지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권력화 과정을 살펴 펴보았다. 물론 필자는 한국문학과 문단권력의 상관성이 『문지』에만 국한된 문제라거나 『문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1960년대 4·19 세대가 전후세대 비평을 타자화함으로써 주류 문단으로서의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세대론적 전략을 드러낸 데서 더욱 심화된 것이므로, 『문지』에 한정된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60년대 비평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4·19 세대의 기성세대 비판이 식민지적 근대성과 전후의 무질서를 초극하는 주체적 비평의식의 결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문단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었던 당시 기성 문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통해 사실상 문단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또다른 권력지향성을 은폐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고는 4월혁명 이후 문학지형의 변화를 주목하는 데서부터 논의를 출발하여 당대의 새로운 동인지나 잡지를 통해 4·19세대의 비평적 의미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현대문학비평사는 한 비평가의 비평적 입장이나 비평 이론 형성에 있어서 다른 입장의 비평 이론이나 사상의 영향력이 섬세하게 스며드는 ‘타자성’을 비평의식의 기반으로 삼으며 전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한 사람의 비평 주체는 단순히 하나의 원초적인 자아에 의해 선형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타자들의 복합적인 목소리에 의해 하나의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논쟁사의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³⁵⁾ 앞서 논의했듯이 1970년

대 『문지』의 타자는 바로 『창비』였음에 틀림없다. 즉 『문지』의 권력화 과정에는 『창비』에 대한 대타의식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두 에콜의 암묵적인 주도권 싸움에 의해 70년대 이후 한국문단은 철저하게 대립되고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물론 이러한 대립적 구도는 문단의 획일화를 경계하고 문학의 다양성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므로, 이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문지』-에콜의 경쟁적 대타의식이 소모적인 주도권 싸움의 과정에 매몰되었던 것은 아닌지, 그들이 전후비평을 타자화함으로써 내세운 주체적 비평의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폐쇄적 권력지향성을 역으로 비판하는 자기모순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객관적인 검증과 비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 문학은 무엇보다도 신비주의적 태도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오랫동안 한국문학의 중심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려온 문학권력과 매체들에 대한 무조건적 해바라기는 앞으로 한국문학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문학적 태도는 이러한 문학권력에 너무도 깊이 종속되어 버린 현실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줄기차게 전개되어 온 일련의 문학권력논쟁은 바로 이러한 비평사의 관행을 뿌리뽑고자 하는 목소리와, 이를 굳게 지킴으로써 견고한 성의 안온함을 오래도록 누리하고자 하는 목소리의 첨예한 대립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 문학권력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4·19세대 비평가들은, 6~70년대 그들 스스로가 전후세대 비평의 권력화와 제도화를 비판하며 문학의 갱신을 외쳤던 장본인임을 다시 기억해야만 한다. 특히 『문지』-에콜은, 그들이 담론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열림”과 “대화”의 정신을 이제는 자기성찰의 차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앞으로 우리 비평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학적 성숙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전후비평, 타자화, 권력지향성, 문학에콜,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문학권력, 4·19세대 비평, 대타의식

35)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비평사를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성파로 권성우, 『1920~30년대 문학 비평에 나타난 ‘타자성’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94)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진호 외 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 권성우, 『4·19세대 비평이 마주한 어떤 풍경』, 『비평의 희망』, 문학동네, 2001.
- 권성우, 『60년대 비평문학의 세대론적 전략과 새로운 목소리』, 『196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3.
- 김병익, 『『창비』와 한국 4반세기의 역사』, 『우공(愚公)의 호수를 보며』, 세계사, 1991.
- 김병익, 『한국문학의 의식』, 동화출판공사, 1976.
- 김주연, 『60년대 소설가 별견』,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82.
- 김철, 『한국 보수주의 문예조직의 형성과 전개(1)』, 『구체성의 시학』, 실천문학사, 1993.
- 김현, 『잃어버린 처용의 노래』, 『산문시대·1』, 1962년 6월.
- 김현, 『한국비평의 가능성』, 『68문학』, 1969년 1월.
- 김형수, 『김현 문학비평 연구』, 창원대 박사학위논문, 2002.
-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 사회운동』, 까치, 1991.
-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창작과비평』 창간호, 1966.
-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1979.
- 이명원, 『백낙청 초기비평의 성과와 한계』, 『타는 혀』, 새움, 2000.
- 이용성, 『한국 지식인잡지의 이념에 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6.
- 임영봉, 『한국현대문학비평사론』, 역락, 2000.
- 정희모, 『문학의 자율성과 정신의 자유로움』,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 한강희, 『우리 근현대문학의 맥락과 쟁점』, 태학사, 2001.
-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희귀 잡지로 본 문학사』, 깊은샘, 2002.
- 홍정선, 『역사와 삶의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6.
- 황국명, 『<문학과지성>의 도식적 기술체계 비판』, 『문학과지성 비판』, 지평, 1987.

<Abstract>

The Othering of Criticism in Post-war Korea and Closed desiring for Power

- Maintaining on "Moonji" (『문학과지성』), 1960~70's

Ha, Sang-Il

This thesis maintains on "Moonji", 1960~1970's and shows phases of authorization in Korean literary criticism.

First of all, I Focused on Critics in 1960's, who organize "Moonji" and have a generational strategy to strengthen the meaning of literary history in criticism of 4.19 Generation through the way of the othering of criticism in post-war Korea.

It is equal that the 1960's criticism is a result of distinguishing to 1950's criticism and devaluating to criticism in post-war Korea as an effort of generational recognition campaign.

Next, I focused on the fact that founding of "Moonji" formed by transcribing the flow of the history of criticism after "the April's revolution"(4월혁명) and it was deepened concretely by the continual founding of a literary coterie magazines after the April's revolution. Especially, I revealed that the founding of "Moonji" is a result of distinguishing from "Changbi" (『창작과비평』) and the confrontation of the history of Korean criticism was deepened by arguing between purism and participation which performed by these two ecole

Like this, The literary world of korea confronted and bisected thoroughly by these two ecole, "Moonji" and "Changbi". Of course, I couldn't say it wronged completely as these two ecole kept the standardizing of literary world and broadened the variation of literature. But it required to criticize

and verify objectively whether the competitive exclusivism of *ecole*, "Moonji" would be exhaust or not and the subjective criticism presented when they others the criticism in post-war Korea would be a self-contradiction or not by being a process of powering.

Key Words: criticism in post-war korea, othering, desiring for power, *ecole de literature*, Changbi, Moonji, literary authority, Criticism in 4 · 19 generation, exclusivism